

작품 내용

제 목	열매
내 용	모두에게는 각자의 나무가 있다.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는 다양한 맛. 누군 시큼, 누군 짭짤, 누군 달달 우리는 같은 숲에서 나무를 길렀다. 서로의 열매를 얻기 위해 값을 치르며 우리는 열매를 더욱 열심히 키웠다. 다양한 맛을 맛보기 위해 우리는 서로의 열매를 먹고 나눴다. 숲은 평화롭게 유지되었다. 그러나 허 끝의 욕망은 커졌고 규칙은 작아졌다. 열매를 원했지만 대가를 치르기 싫었다. 어느 날부터 열매는 밤마다 사라졌다. 아침이면 가지 끝이 뜯겨진 자국이 늘어났다. 참다 못한 어떤이가 자신의 나무 주변으로 높은 울타리를 세웠다. 이후 숲 곳곳에서 다급한 망치소리가 번져갔다. 열매는 다시는 공유되지 않았다. 옆사람은 신 맛의 열매만, 앞사람은 쓴 맛의 열매만 먹으며 모두의 미각이 퇴화되었다.